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이도영¹, 박진경², 최애숙^{3*}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²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³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nce Factors of Spirituality affecting on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Lee Do-Young¹, Park Jin-Kyoung², Chio Ae-Sook^{3*}

¹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학년 148명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8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영성과 영적 안녕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에는 종교유무, 매일 기도하기와 영성의 내적자원으로 65.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실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삶의 의미, 내적 자원으로 59.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영적 안녕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 주제어 : 융합, 영적 안녕, 삶의 의미, 내적 자원, 상호관계, 초월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piritua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 on spiritual wellbeing. We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structural survey to 148 freshmen from 2 nursing college from October to December, 201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 18 program by mean, SD,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A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subdivisions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resul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all of the subdivisions. As for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the variables influencing religious wellbeing such as religious status, daily devotion, and inner resource of spirituality had 65.1% of explanation power, while the variables influencing existential wellbeing such as meaning of life, inner resource had 59.3% of explanation power. We expect this study will provide with base data to develop the improvement program of spiritual wellbeing considering the qua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

• Key Words : Convergence,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Inner resource, Correlation, Transcendence

*Corresponding Author : 최애숙(aschoi@bscu.ac.kr)

Received July 28, 2016
Accepted October 20, 2016

Revised October 4,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개념으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1]. 인간의 영적인 면은 신체적인 면과 따로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의 생활을 비롯하여 정신적 지지와 굳은 신념 체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2]. 영성(Spirituality)은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볼 때 인간됨으로써의 전인성을 실현해 주는 근본으로, 내적 자원의 총체가 되며 인간을 활기 있도록 돕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이다[3]. 흔히 영성은 종교의 개념과 한데 아울러 사용되어 왔지만, 간호에서 영성은 종교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4,5],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다루어 왔다. 특히 행동을 유발하는 삶의 중심이 되는 철학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통합하는 바탕이 되며[6],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을 초월하여 절대자를 비롯하여 이웃과 환경에 대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았다[7].

한편,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은 영적 본성이 최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환경을 조화로운 관계로 형성하여 자신의 놓인 상태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다. 영적 안녕은 절대자와의 관계인 종교적 영적 안녕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안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안녕은 절대자에 대한 인지를 통하여 다양한 삶의 위기에 대해 대처하고 자신의 삶의 관점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종교적 안녕은 별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실존적 안녕과 함께 이해될 수 있는데, 실존적 안녕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및 목적에 관계된 것으로 의미, 믿음, 가치, 경험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8]. 영적으로 안녕하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총체적인 건강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며[9], 부정적인 처지나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타인과 지지적인 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이 나타난다[10]. 따라서 영적 안녕 상태의 학생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유 및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습과 역할 변화에 다

른 주위 상황을 관계 지어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진리 같은 가치를 달성해 나갈 수 있게 한다[11].

Highfield와 Cason[12]은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자신 또한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영적 이해가 보다 더 필요하며, 간호사가 대상자의 영적인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간호사의 교육적 배경과 사회적인 영향과 특히 간호사 개인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13,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고 자살생각이 감소되며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더욱이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인적 인성 발달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관한 직업적 소명감과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임상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간호업무수행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실존적 안녕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중 지도력, 위기대처, 교육과 협조, 계획과 평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전문직발달이 높았다[18]. 따라서 간호사가 영성이 높고, 영적으로 안녕할수록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이는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보다 더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성과 영적 안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의 기초 자료를 뒷받침하고자 시도되었다.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영적 안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정도를 향상시켜 간호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두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간호대학생의 표본크기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G*Power 3.1.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19], 회귀분석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인 .15, 유의수준은 5%, 검정력 90%, 예측변수의 수(Number of predictors) 9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41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164명 학생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한 후, 이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설문을 제외한 후 총 14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영적 안녕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 Paloutzian과 Ellison[9]가 개발한 영적 안녕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Kang[20]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종교적 영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의 10문항은 절대자와의 관계의 안녕감을 측정하며, 실존적 영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의 10문항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측정한다. 총 2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

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영적 안녕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의 신뢰도는 .92, 종교적 안녕의 신뢰도는 .86, 실존적 안녕의 신뢰도는 .84이었으며, 영적 안녕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2.3.2 영성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owden[21]이 개발한 도구를 Oh등[22]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Spirituality Assessment Scale)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 영역은 4문항의 삶의 의미와 목적, 8문항의 내적 자원, 10문항의 상호관계성, 6문항의 초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3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2개의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2014년 10월부터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교수와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설문소요 시간, 연구 참여시 개인 정보 보호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얻었으며, 참여 과정 중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철회의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무기명과 비밀보장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Table 1> The degree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ity of the subject (N=148)

Variables	Total item	Item
	Mean±SD	Mean±SD
Spiritual wellbeing	68.29±12.99	3.41±0.65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31.51±8.67	3.15±0.87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36.80±6.59	3.68±0.66
Spirituality	94.39±13.47	3.37±0.48
Meaning of life	14.45±2.55	3.61±0.64
Inner resource	26.64±4.56	3.33±0.57
Correlation	34.37±4.82	3.47±0.48
Transcendence	18.76±3.30	3.13±0.55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18(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제 변수들의 값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제 변수별 영적 안녕의 평균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상호관계성, 초월성의 4가지 영성의 하위영역과 종교적 안녕 및 실존적 안녕의 2가지 영적 안녕 하위영역 간의 상호관계를 Pearson correlation으로 산출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영성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영성의 정도는 <Table 1>

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은 3.41±0.65점이었고, 하부요인인 종교적 안녕은 3.15±0.87점, 실존적 안녕은 3.68±0.66점 있었다.

영성은 평균 3.37±0.48이었으며, 그 하부요인으로 삶의 의미 3.61±0.64점, 내적자원 3.33±0.57점, 상호관계 3.47±0.48점, 초월성은 3.13±0.55점이었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 수준

간호대상자의 제 변수에 따른 영적 안녕은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19.78세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세 미만이 72.3%(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29세가 25.7%(38명)이었다. 한 달 용돈은 20~40만원이 56.1%(83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성적은 56.8%(84명)가 상위 31~70%에 속하며,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은 61.5%(91명)이었다. 종교가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58.1%(86명)이었으며,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은 23.0%(34명)이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간호대학생은 12.8%(19명)이었으며, 영적 간호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47.3%(70명)이었다.

<Table 2> The Spiritu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Age(yr)	≤ 20	107(72.3)	31.55±8.57	0.47	.703			36.71±6.69	0.67	.570	
	20~29	38(25.7)	31.34±9.12					37.24±6.22			
	30~39	2(1.4)	36.50±9.19					38.00±11.31			
	40 ≤	1(0.7)	24.00±0.00					28.00±0.00			
	Mean±SD : 19.78±2.83 Range : 18~46										
expenses (10,000won)	≤ 20	46(31.1)	32.63±9.16	0.41	.745			35.85±6.87	0.57	.635	
	20~40	83(56.1)	31.63±8.16					37.27±6.49			
	40~60	15(10.1)	28.13±8.16					36.67±6.07			
	60 ≤	4(2.7)	29.00±14.46					38.75±8.62			
Study grade	≤ 30% ^a	28(18.9)	34.44±10.61	2.84	.062			41.00±7.29	8.17	<.001	a>b a>c
	31~70% ^b	84(56.8)	31.45±7.51					36.05±5.77			
	71~100% ^c	36(24.3)	29.20±9.29					34.89±6.72			
Health status	Good ^d	91(61.5)	31.66±8.79	0.37	.692			37.90±6.67	3.38	.037	a>b
	Normal ^b	55(37.2)	31.22±8.60					35.02±6.10			
	Bad ^f	2(1.4)	36.50±9.19					38.00±11.31			
Religious status	Yes	86(58.1)	35.90±7.80	9.73	<.001			38.02±7.09	2.77	<.001	
	No	62(41.9)	25.31±5.18					35.15±5.49			
Daily devotion	Yes	34(23.0)	41.84±6.97	9.44	<.001			41.19±6.88	4.41	<.001	
	No	114(77.0)	28.92±6.69					35.61±6.07			
Diary	Yes	19(12.8)	37.00±8.52	3.03	.003			41.26±6.62	0.51	.002	
	No	128(87.2)	30.69±8.45					36.17±6.37			
Educational experience in spiritual nursing	Yes	70(47.3)	32.83±8.89	1.76	.080			37.93±6.42	1.99	.049	
	No	78(52.7)	30.33±8.34					35.79±6.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교적 안녕 점수는 종교($t=9.73, p<.001$), 매일 기도하기($t=9.44, p<.001$), 매일 일기쓰기($t=3.03,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존적 안녕 점수는 성적($t=8.17, p<.001$), 건강상태($t=3.38, p=.037$), 종교($t=2.77, p<.001$), 매일 기도하기($t=4.41, p<.001$), 매일 일기쓰기($t=0.51, p=.002$), 영적간호교육경험($t=1.99, p=.04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성적이 상위 30%인 경우가 31~70%나 71~100%에 비해 실존적 안녕점수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실존적 안녕점수가 높았다.

3.3 영성과 영적 안녕의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영적 안녕의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영적 안녕 중 종교적 안녕은 영성 중 삶의 의미($r=.41, p<.001$), 내적 자원($r=.65, p<.001$), 상호관계($r=.39, p<.001$), 초월성($r=.36,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실존적 안녕과 영성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r=.73, p<.001$), 내적 자원($r=.64, p<.001$), 상호관계($r=.59, p<.001$), 초월성($r=.45,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의 영향요인

<Table 4>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하위영역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넣어 분석한 다중 회귀모형이다.

간호대학생의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에는 종교유무($\beta=-.031, p<.001$), 매일 일기쓰기($\beta=-.029, p<.001$)와 영성의 내적자원($\beta=0.50, p<.001$)이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36.5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6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7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며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은 공차한계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3].

실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영성의 하위영역 중 삶의 의미($\beta=0.57, p<.001$), 내적 자원($\beta=0.23, p=.038$)이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 에서 28.4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59.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2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며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은 공차한계(Tolerance)가 0.25~0.91로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23].

4. 논의

간호는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에서 전인간호를 행하는 것을 목적을 두므로[24], 간호대학생에게 영적 안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5].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영적 안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과목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영성은 5점 만점에 3.37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을 측정한 Hong 등[26]의 연구에서는 3.18점, Lee[27]의 연구에서는 3.89점,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divisions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wellbeing

(N=148)

	A	B	C	D	E	F
	r(p)	r(p)	r(p)	r(p)	r(p)	r(p)
Spirituality	A. Meaning of life	1				
	B. Inner resource	.68 ($<.001$)	1			
	C. Correlation	.69 ($<.001$)	.75 ($<.001$)	1		
	D. Transcendence	.55 ($<.001$)	.72 ($<.001$)	.64 ($<.001$)	1	
Spiritual wellbeing	E.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41 ($<.001$)	.65 ($<.001$)	.39 ($<.001$)	.36 ($<.001$)	1
	F.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73 ($<.001$)	.64 ($<.001$)	.59 ($<.001$)	.45 ($<.001$)	.43 ($<.001$)

Choi와 Kim[28]의 연구에서는 3.44점으로 연구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Lee의 연구[27]에 따르면 이처럼 간호학생의 영성 수준이 다른 것은 개인이 가진 종교와 같은 신념에 따라 영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Jo와 Jun[32]의 연구에서는 영성 점수가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영성 수준은 추후 간호사로서 전문적 돌봄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성의 하위 영역 중 삶의 의미는 3.37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초월성의 점수는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인 Lee[27]와 Choi와 Kim[2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28], Lee[27]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은 적성보다는 타의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을 통하여, 전공 및 직업선택에 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초월성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차원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것 뿐 아니라 신비감과 신앙의 요소를 더하는 요인으로서[28], 이러한 결과는 Lee[27]의 연구결과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간호학생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월성은 영적 성장의 마지막 결정체이며, 대학생들이 현대사회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감각이므로 이를 증진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대[28].

영성은 자신이 처한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힘으로[28], 간호사들의 경우 임상

에서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영적욕구와 영적간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자신이 영성에 대한 인식과 영적 관련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간호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9]. Sung[30]과 Lee[31]의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과 영적간호수행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Lee[31]는 간호사가 대상자들의 영적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먼저 높은 영적 안녕을 유지해야 하여야만 적절한 영적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의 방향은 대상자의 영적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32].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점수는 5점 만점에 3.41점으로 하부 요인인 종교적 안녕은 3.15점, 실존적 안녕은 3.68점이었다. Lee와 Han[25]의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점수는 4점 만점의 2.7점이었으며 종교적 안녕 점수는 2.3점, 실존적 안녕 3.1점이었다. 영적 안녕의 최대 점수가 80점으로 측정되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과 Kim[33]의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 59.69점, 종교적 영적 안녕 28.51점, 실존적 영적 안녕 31.18점이었으며, Kim등[34]의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 52.62점, 종교적 영적 안녕 25.91점, 실존적 안녕 26.70점이었다. 본 연구를 비롯해 실존적 영적 안녕이 종교적 영적 안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으며, 이를 Kim과 Kim[33]은 간호대학생 중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신이나 절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ee와 Han[25]의 연구와 Sung[30]의 연구에서는 신과 관련된 종교적 안녕보

<Table 4> Influential Factors of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N=148)

Variables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2.80	0.24		6.14	<.001	13.22	0.07		2.96	.004
Religious status	-5.39	0.02	-0.31	-5.25	<.001	-0.14	0.03	-0.01	-0.16	.872
Daily devotion	-5.99	0.12	-0.29	-4.74	<.001	-1.35	0.02	-0.08	-1.28	.204
Diary	-0.41	0.23	-0.02	-0.30	.762	-1.25	0.06	-0.06	-1.11	.269
Meaning of life	0.29	0.04	0.09	1.15	.253	1.47	0.13	0.57	6.94	<.001
Inner resource	0.94	0.15	0.50	4.95	<.001	0.33	0.17	0.23	2.10	.038
Correlation	-0.18	0.03	-0.10	-1.18	.238	0.04	0.07	0.03	0.28	.780
Transcendence	-0.26	0.05	-0.10	-1.33	.185	-0.15	0.02	-0.07	-0.89	.376

Statistics

F=36.59, $p<.001$

Durbin-Watson=2.17

F=28.48, $p<.001$

Durbin-Watson=2.02

TI=tolerance limit

다 자신의 삶의 존재와 삶의 만족에 바탕을 둔 실존적 안녕에 더 높은 안녕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 입장에서 대상자를 간호하면서 야기되는 다양한 간호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상자에게 영적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간호대학생은 내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간호 함양이 필요하며[33],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수련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이어야 한다[25]. 선진국에서는 이미 간호사가 환자의 영성에 관한 간호를 담당해야 하는 필연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위한 영적간호에 대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이 재조명 되어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역량을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33]. 간호학에서는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해 임상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35,36],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프로그램이 요구된다[37]. 간호 직무는 감정도동, 스트레스, 소진이 높다고 보고되며[38],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교육 시 영적 간호 함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가 지각한 믿음 정도는 영적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39], Kim과 Kim[3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신앙생활을 한 기간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는 없으나, 종교의 유무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적극성의 정도와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영적 안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에서 공통적으로 종교의 유무, 매일 기도하기와 매일 일기쓰기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에 종교유무, 매일 일기쓰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를 가지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영적 안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와 상응한다. 하지만 종교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요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를 더욱 알아보고 차별화된 영적간호 교육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대한 영적교육이 필요하며[33],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필요 시 되는 방법을 용

합하는 다각도의 교육적 시도가 필요하다[40].

간호대학생의 영성, 실존적 안녕, 종교적 안녕과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에는 종교유무, 매일 일기쓰기와 영성의 내적자원으로 65.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실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삶의 의미, 내적 자원으로 59.3%의 설명력을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영성이 높을수록 영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성의 내적자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의 중요성과 영성이 영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간호대학을 표본으로 하여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사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영적 안녕에 대한 분명한 인과관계를 언급하는 데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된 구축을 위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영성과 영적 안녕이 갖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를 추후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종교유무, 종교 활동, 영성의 내적자원이었으며, 실존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영성의 하위 영역 중 삶의 의미, 내적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성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통하여 영성에 있어 영적 안녕의 중요성을 확인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영적 안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반복연구를 통한 일반화된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영성 이외에 영적 안녕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검증을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1, No. 10, pp. 1403 - 1409, 1995.
- [2] N. K. Aaronson, J. Beckmann, "The Quality of Life Cancer Patients", New York: Raven Press, 1987.
- [3] L. Hill, N. Smith, "Self-care nursing; Promotion of health", *Appleton - Century - Crofts*, pp. 186-216, 1985.
- [4] W. H. Lee, "Pain control and nursing intervention",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 pp. 58-62, 1999.
- [5] K. J. Lee, Y. S. Park, "Nurses' Spirituality and Attitude toward Terminal Care in Geriatric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347-357, 2015.
- [6] H. Y. Yoon, K. H. K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57-274, 2015.
- [7] S. H. Kim, "Relationship of death definition and spiritual welling on hospitalized elderly", Master's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2001.
- [8] R. F. Paloutzian,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L.A. Peplan and K. Perlman, *Loneliness : A source book of th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Wiley Interscience, 1982.
- [9] Y. E. Lee, H. S. Park, S. K. Son,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death and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Christian World view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Vol. 12, No. 3, pp. 195-232, 2007(December).
- [10] F. Vaughan, "The inward arc :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1986.
- [11] H. R. Hwang, S. J. Ryu,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Barrie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11, pp. 355-380, 2009.
- [12] M. F. Highfield, C. Cason, "Spiritual needs of patients: Are they recognized?", *Cancer Nursing*, Vol. 6, pp. 187-192, 1983.
- [13] I. H. Park, "A study on influence of spirituality upon job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2009.
- [14] M. S. Sim, "A study on spiritu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center workers", Master's dissertation, Shinhan University, 2014.
- [15] S. B. Cho, S. H. Kim, "Development of a spiritu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3, No. 2, pp. 877-890, 2012.
- [16] H. G. Koenig, "Research on religion, spirituality and ental health: a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54, pp. 283-291, 2009.
- [17] S. N. Kim, "Spirituality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metropolitan c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9, No. 2, pp. 143-153, 2010.
- [18] S. H. Lee, "Spiritual well-being and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9.
- [19] F. Faul, E. Erdfelder, A.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 Behavioral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2007.
- [20] J. H. Kang, "A study for the spiritual well-being of cancer patient", Master's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6.
- [21] J. W. Howden,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Ph. D.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 [22] B. J. Oh, H. S. Jeon, W. S. So, "Spiritual assessment scale :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 1, No. 2, pp. 168-179, 2001.
- [23] J. J. Song, "SPSS/AMOS Statistic analysis methods. 2nd", Seoul: 21Century, 2013.
- [24] M. Y. Chung,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o establish spirituality courses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6, No. 3, pp. 721-741, 2012.
- [25] N. Y. Lee, J. Y. Han,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1, pp. 21-27, 2014.
- [26] S. S. Hong, J. A. Hong, W. H. Ju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361-369, 2013.
- [27] M. H. Lee, "Spiritua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1, No. 3, pp. 265-274, 2014.
- [28] S. O. Choi, S. N. Kim,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90-199, 2011.
- [29] S. Milligan, "Perceptions of spiritual care among nurses undertaking post-registratio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Vol. 10, No. 4, pp. 162-171, 2004.
- [30] M. H. Sung,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Asian Oncology Nursing, Vol. 9, No. 1, pp. 15-22, 2009.
- [31] E. H. Lee,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Master's dissertation, Kong Ju University, 2006.
- [32] M. J. Jo, W. H. Jun, "Effects of hope and gratitude on spirit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69-576, 2014.
- [33] C. N. Kim, Y. A. Kim, "A surve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2, No. 1, pp. 97-105, 2008.
- [34]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0, No. 1, pp. 1-9, 2014.
- [35] J. M. Kim, Y. S. Choi, "Effect of practice education using the simulator,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cess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 263-270, 2015.
- [36] M. S. Jung, Y. S. Kwon,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and Confid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 295-302, 2015.
- [37] Y. M. Lee, K. A. Jung, M. A. Son,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uthanasia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213-224, 2015.
- [38] Y. J. Oh, Y. H. Choi, "Effects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burnout on somatization in nurses :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415-424, 2015.
- [39] B. J. Oh, "Relationship of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on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9, No. 2, pp. 189-198, 1997.
- [40]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6-86, 2015.

저자소개

이 도 영(Lee Do Young)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응급간호

박 진 경(Jin-Kyoung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2015년 2월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건강, 건강증진, 영성간호

최 애 숙(Ae-Sook Choi) [정회원]



- 1988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선린대학교 간호과 강의전담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간호, 영적간호, 건강증진